

국어의 표준 화법 (시안)

머 리 말

이 책은 문화부, 국립국어연구원, 조선일보사가 1990년 10월부터 1991년 12월까지 공동으로 벌여 온, 호칭·지칭어, 경어법, 인사말 등의 생활 언어에 대한 화법 표준화 사업의 결과 얻어진 표준안과 그에 대한 해설을 발췌 요약한 것입니다.

그 동안 이러한 생활 언어에 대한 규범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혼란이 매우 심하였습니다. 문화부와 국립국어연구원은 이러한 혼란을 바로 잡고 언어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민간 주도로 이 말들을 표준화함으로써 일상 언어 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조선일보사와 함께 이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국립국어연구원은 문헌에 나타난 말과 현재 쓰이고 있는 말을 두루 조사하고, 조선일보사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열두 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한 뒤에 가장 적절한 말을 골라 표준안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표준안은 앞으로 국어심의회를 거쳐 표준 화법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확정하기 전에 국민들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들어서 반영하고자 이 작은 책을 냅니다. 이 표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이 책의 맨 뒤에 있는 독자 의견란에 적어 문화부 어문과나 국립국어연구원으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표준안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조선일보사에서 곧 발간할 '우리 말의 예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가르침을 주셔서 이 사업이 훌륭하게 마무리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거듭 바랍니다.

그 동안 이 사업을 도와 주시고 격려해 주신 여러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1991년 12월 일
문 화 부
국립국어연구원

차 례

머리말	3
-----	---

호칭·지칭어 편

1. 부모, 자녀의 호칭·지칭어	9
2. 시부모, 며느리의 호칭·지칭어	10
3. 처부모, 사위의 호칭·지칭어	13
4. 남편에 대한 호칭·지칭어	15
5. 아내에 대한 호칭·지칭어	16
6.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한 호칭·지칭어	17
7. 남편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한 호칭·지칭어	21
8. 아내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한 호칭·지칭어	24
9. 숙질간의 호칭·지칭어	26
10. 사돈간의 호칭·지칭어	29
11. 직장에서의 호칭·지칭어	31
12. 타인에 대한 호칭·지칭어	32
13. 자기를 가리키는 말	37

경어법 편

14. 가정에서의 경어법	41
15. 직장, 사회에서의 경어법	42

인사말 편

16. 아침, 저녁 인사말.....	45
17. 만나고 헤어질 때의 인사말.....	46
18. 소개 인사말.....	47
19. 송년, 신년 인사말.....	48
20. 생일 축하 인사말.....	49
21. 축하, 위로의 인사말.....	51
22. 문상 인사말.....	52
23. 손님 맞이 인사말.....	54
24. 건배할 때의 말.....	56
25. 전화 예절.....	57
26. 편지 쓰는 법.....	59

* 독자 의견란

호칭·지칭어 편

1. 부모, 자녀의 호칭·지칭어

부모에 대한 호칭·지칭어

		살아 계신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
호칭어	어릴 때	어머니(엄마), 아버지(아빠)		
	성장 후	어머니, 아버지		
지칭어	부모, 조부모에게	어머니(엄마), 아버지(아빠)		어머니, 아버지
	친척에게	어머니(엄마), 아버지(아빠)		어머니(님), 아버지(아버님)
	남편에게	친정(지역 이름) 어머니, 친정(지역 이름) 아버지		친정 어머니(님), 친정 아버지(아버님)
	아내, 형제, 자매, 처가 쪽 사람에게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님), 아버지(아버님)
칭어	시댁 쪽 사람에게	칭정(지역 이름) 어머니, ○○ 외할머니, 친정(지역 이름) 아버지, ○○ 외할아버지		칭정 어머니(님), ○○ 외할머니(님), 친정 아버지(아버님), ○○ 외할아버지(외할아버님)
	타인에게	아들, 미혼의 딸이	어머니, 아버지	
기혼의 딸이		(친정) 어머니, ○○ 외할머니, (친정) 아버지, ○○ 외할아버지		친정 어머니(님), ○○ 외할머니(님), 친정 아버지(아버님), ○○ 외할아버지(외할아버님)

자녀에 대한 호칭·지칭어

		혼인하지 않은 자녀	혼인한 자녀
호칭어		○○[이름]	(○○) 아비(아범), (○○) 어미(어멈), ○○[이름]
지칭어	가족, 친척에게	○○, [그들이 부르는 대로]	(○○) 아비(아범), (○○) 어미(어멈), ○○[이름], [그들이 부르는 대로]
	자녀의 직장 사람들에게	○○○ 씨, ○(○○) 직함(님)	

	혼인하지 않은 자녀	혼인한 자녀
어	타인에게	(우리) ○○[이름], (우리) 아들, (우리) 딸
	손자, 손녀(해당 자녀의 자녀)에게	아버지(아빠, 아비, 아범), 어머니(엄마, 어미, 어멈)
	사돈 쪽 사람에게	○○ 아비(아범), ○○ 어미(어멈), [그들이 부르는 대로], ○○[이름]

부모님을 부르는 말(호칭어)은 ‘아버지’, ‘어머니’가 가장 일반적이고, 편지글에서는 ‘어머님 보시옵소서’하고 ‘님’을 붙이기도 한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도 약주를 좋아하세요.’와 같이 부모님을 가리키는 말(지칭어)도 호칭어와 같은 ‘아버지’, ‘어머니’이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지칭할 때는 ‘아버님’, ‘어머님’도 쓸 수 있다.

혼인하지 않은 자녀는 이름으로 부르고 혼인한 뒤에는 ‘아비’, ‘어미’ 또는 ‘아범’, ‘어멈’으로 부르거나, 손자·손녀의 이름을 넣어 ‘철수 아비’, ‘영이 어미’로 부른다. 가족이나 친척 가운데, 가리키고자 하는 자녀보다 아랫사람에게는 ‘[딸에게] 오빠 방에 있니?’, ‘[손녀에게] 내일 고모하고 국립극장에 가니?’의 ‘오빠’, ‘고모’처럼 그들이 부르는 말로 지칭한다.

2. 시부모, 며느리의 호칭·지칭어

시아버지에 대한 호칭·지칭어

호 칭 어		아버님
지 칭 어	시조부모에게	아버님(아버지)
	시아버지에게	아버님
	시아머니에게	아버님
	남편에게	아버님
	자녀에게	할아버지(할아버님)
	남편의 동기에게	아버님
	동서에게	아버님
	시댁 친척에게	아버님, [그들이 부르는 대로]
	친정 쪽 사람에게	시아버님, 시아버지, ○○ 할아버지(할아버님)
	타인에게	(시)아버님, ○○ 할아버지(할아버님)

시어머니에 대한 호칭·지칭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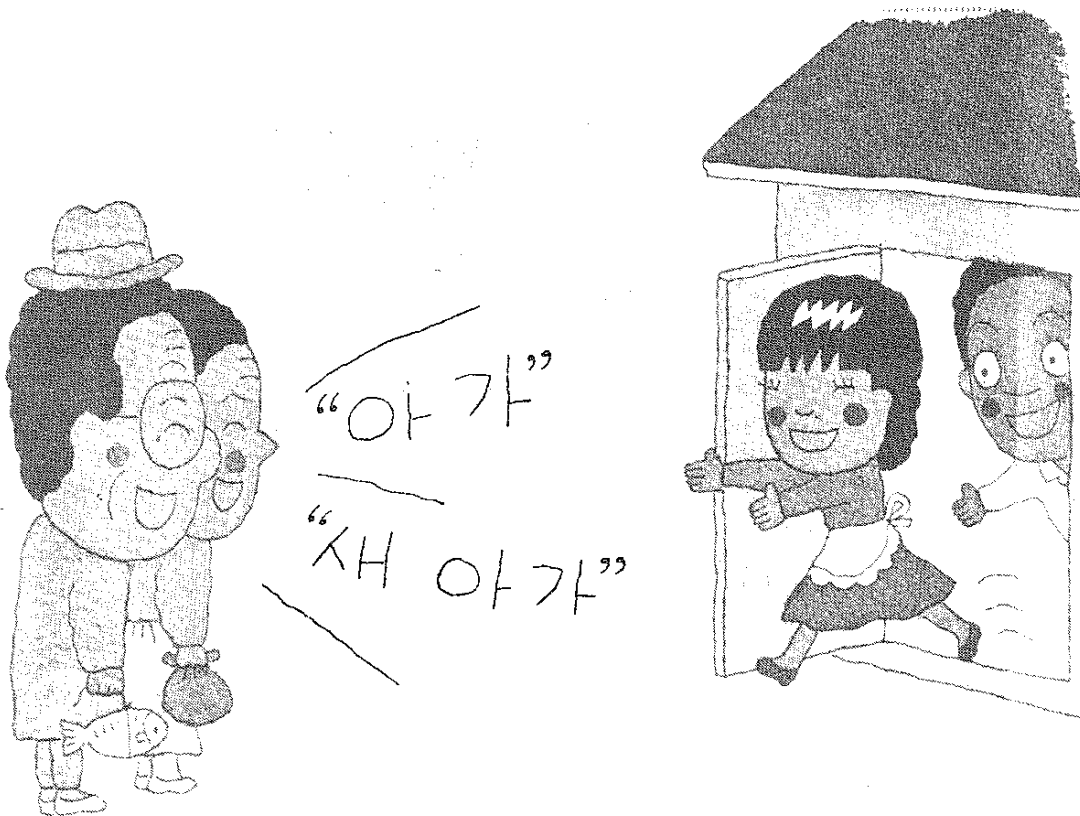
호 칭 어		어머님, 어머니
지 칭 어	시조부모에게	어머니(님)
	시아버지에게	어머님, 어머니
	시어머니에게	어머님, 어머니
	남편에게	어머님
	자녀에게	할머니(님)
	남편의 동기에게	어머님
	동서에게	어머님
	시댁 친척에게	어머님, [그들이 부르는 대로]
	친정 쪽 사람에게	시어머님, 시어머니, ○○ 할머니(님)
타인에게	(시)어머님, ○○ 할머니(님)	

며느리에 대한 호칭·지칭어

호 칭 어		아가, 새아가, (○○) 어미(어멈), 애야
지 칭 어	며느리에게	아가, 새아가, (○○) 어미(어멈), 너
	부모에게	며늘애, ○○ 어미(어멈), ○○ 댁, ○○ 처
	배우자에게	며늘애, 새아가, ○○ 어미(어멈), ○○ 댁, ○○ 처
	아들에게	○○ 어미, 네 댁, 네 처
	손자, 손녀에게	어머니, 엄마, (어미)
	큰 아들에게	○○ 어미, ○○ 댁, 제수, 계수
	큰 며느리를 작은 아들에게	○○ 어미, (네) 형수
	작은 며느리를 큰 딸에게	○○ 어미, 올케, ○○ 댁
	큰 며느리를 작은 딸에게	○○ 어미, 올케, 새언니
어	다른 며느리에게	○○ 어미, 동서, (네) 형
	사위에게	처남의 댁, ○○ 어미, ○○ 댁
	친척에게	며느리, 며늘애, ○○ 댁, ○○ 어미, ○○ 처, [그들이 부르는 대로]
	사돈에게	며늘애, ○○ 어미, [그들이 부르는 대 로]

시아버지를 부르는 말은 '아버지'의 높임말인 '아버님'을 표준안으로 하고, 시어머니의 경우는 '어머님'과 '어머니'를 표준안으로 했다.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우리 속담이 있지만 실생활에서 시아버지는 禮를 갖춰야 할 어려운 대상이므로 '아버님'으로 했다. 시어머니도 물론 禮를 다하여 모셔야 될 분이지만,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고 시아버지보다는 친밀한 대상이기 때문에 친어머니처럼 '어머니'로 부르는 현실을 인정한 것이다.

며느리를 '애야'하고 부를 때에는, 시부모의 말투에 따라서는 며느리가 불쾌하게 받아들일 염려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첫째 며느리를 둘째 며느리에게 지칭할 때는 '형은 시장에 갔니?' 처럼 '형'으로 하고, 둘째 며느리를 첫째 며느리에게 지칭할 때는 '동서 시장에 갔니?' 처럼 '동서'라고 할 수 있다.



3. 처부모, 사위의 호칭·지칭어

장인에 대한 호칭·지칭어

호 칭 어		장인 어른, 아버님
지 칭 어	장인에게	장인 어른, 아버님
	장모에게	장인 어른, 아버님
	아내에게	장인 (어른), 아버님
	부모와 동기에게	장인 (어른), ○○ 외할아버지
	친척에게	장인 (어른), ○○ 외할아버지
	아내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장인 어른, 아버님
	자녀에게	외할아버지(외할아버님)
	타인에게	장인 (어른), ○○ 외할아버지

장모에 대한 호칭·지칭어

호 칭 어		장모님, 어머니
지 칭 어	장인에게	장모님, 어머니
	장모에게	장모님, 어머니
	아내에게	장모(님), 어머니
	부모와 동기에게	장모(님), ○○ 외할머니
	친척에게	장모(님), ○○ 외할머니
	아내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장모(님), 어머니
	자녀에게	외할머니(님)
	타인에게	장모(님), ○○ 외할머니

사위에 대한 호칭·지칭어

호 칭 어		○ 서방, 여보게
지 칭 어	사위에게	○ 서방, 자네
	딸에게	○ 서방
	장인, 장모가 대화하면서	○ 서방
	사돈에게	○ 서방
	아들에게	○ 서방, 매부
	(다른) 딸에게	○ 서방, 형부
	며느리에게	○ 서방
	(다른) 사위에게	○ 서방
외손자, 외손녀에게	아버지, 아빠	
타인에게	사위, ○ 서방	

전통적으로 처부모는 ‘장인 어른’, ‘장모님’이라고 부르고 낳아 준 부모에게만 ‘아버지’, ‘어머니’하고 불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젊은 세대에서는 대부분 처부모를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르고 있어 이를 표준 안에 넣었다.

처부모를 ‘빙장 어른’, ‘빙모님’이라고 부르거나 가리키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 말은 원래 다른 사람의 처부모를 높여 부르는 말이다.



do

4. 남편에 대한 호칭·지칭어

호칭어	신혼 초 자녀가 있을 때 장-노년	여보, ○○ 씨, 여봐요 여보, ○○ 아버지, ○○ 아빠 여보, 영감, ○○ 할아버지, ○○ 아버지
지칭어	남편에게 시부모에게 친정 부모에게 남편 동기에게 남편 동기의 배우자에게 친정 동기에게 자녀에게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친구에게 남편 친구에게 남편 회사에 전화를 걸 때 아는 타인에게 모르는 타인에게 남편의 회사 사람에게	당신, ○○ 씨[신혼 초], 영감 아비, 아범, 그이 ○ 서방, 그 사람 형(님), 동생, 오빠 그이, ○○ 아버지, ○○ 아빠 매부, 매형, 형부, ○ 서방, 그이, ○○ 아버지, ○○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님 장인, 장인 어른, 아버님 그이, 우리 남편, 애 아버지, 애 아빠 그이, 애 아버지, 애 아빠, 바깥 양반, 바깥 사람 ○○○ 씨, 직함 또는 성이나 성명과 직 함을 부른다 ○○ 아버지, ○○ 아빠, 바깥 양반, 바깥 사람 우리 남편, 저희 남편 그이

신혼 때든 회갑을 넘어서든 어느 경우에도 남편은 ‘여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밖에 상황에 따라 <표>에 있는 말을 쓸 수 있다. 남편을 부를 때 아이들이 부르는 대로 ‘아빠’라고 부르거나 ‘자기’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 ‘아빠’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부르는 말이고, ‘자기’는 젊은 세대에서 많이 쓰는 말이지만 하나 바람직한 호칭어는 아니다.

지칭어는 남편을 직접 부르는 말이 아니라 ‘여보, 당신이 김치독 옮기신다고 하셨죠?’와 같이 남편에게 남편을 가리킬 때 ‘당신’이라고 하거나, ‘어머님, 아비가 어머님 모시고 온천에 가자고 하는데요.’와 같이 시부모에게 남편을 ‘아비’라고 가리키는 말을 뜻한다.

5. 아내에 대한 호칭·지칭어

호칭어	신혼 초 자녀가 있을 때 장-노년	여보, ○○ 씨, 여봐요 여보, ○○ 어머니, ○○ 엄마 여보, 임자, ○○ 어머니, ○○ 엄마, ○○ 할머니
지칭어	아내에게 친부모에게 장인, 장모에게 형에게 동생에게 누나에게 여동생에게 형수, 매부, 제수에게 손위 처남에게 손아래 처남에게 처남의 댁에게 처형에게 처제에게 동서에게 자녀에게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아내 친구에게 아내 회사에 전화를 걸 때 아내 회사 사람에게 친구에게 아는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 ○○ 씨[신혼 초], 임자 (○○) 어미(어멈), 그 사람 ○○ 어미(어멈), 집사람, 그 사람, 안사람 ○○ 엄마, 집사람, 안사람, 처 ○○ 엄마, 형수 ○○ 엄마, 집사람, 안사람, 처 ○○ 엄마, (새)언니 ○○ 엄마, 집사람, 안사람, 처 ○○ 엄마, 집사람, 안사람, 처 ○○ 엄마, 누나 ○○ 엄마, 집사람, 안사람, 처 ○○ 엄마, 집사람, 안사람, 처 ○○ 엄마, 언니 ○○ 엄마, 집사람, 안사람, 처 어머니, 엄마 어머니 장모 그 사람, 집사람, 안사람, 애 어머니, 애 엄마 ○○○ 씨, 직함 또는 성이나 성명과 직 함을 부른다 그 사람 그 사람, 집사람, 안사람, 아내 ○○ 엄마, 집사람, 아내, 안사람, 처 집사람, 아내, 안사람, 처

아내를 직접 부르는(호칭) 말도 남편을 부르는 말처럼 어느 경우에도 '여보'라고 하고, 그 외는 나이와 상황에 따라 <표>에 있는 말을 적절히 골라 쓸 수 있다. 예컨대 아내의 친구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아내를 부를 때는 '여보'하고 부르는 것보다 자녀의 이름이나 손녀의 이름을 넣어 '철수 어머니', '나리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더 어울릴 수도 있다.

6.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한 호칭·지칭어

남자의 경우

		형	형의 아내
호 칭 어		형, 형님	아주머님, 형수님
지 칭 어	당사자에게	형, 형님	아주머님, 형수님
	부모에게	형	아주머니, 형수
	동기, 처가 쪽 사람에게	형, 형님	아주머니(님), 형수(님)
	자녀에게	큰아버지(큰아버님)	큰어머니(님)
	타인에게	형, 형님	형수(님)

		남동생	남동생의 아내
호 칭 어		○○[이름], 아우, 동생	제수씨, 계수씨
지 칭 어	부모, 동기, 타인에게	○○[이름], 아우, 동생	제수(씨), 계수(씨)
	처가 쪽 사람에게	아우, 동생	제수(씨), 계수(씨)
	자녀에게	삼촌, 작은아버지(작은아버님)	작은어머니(님), 숙모(님)

		누나	누나의 남편
호 칭 어		누나, 누님	매부, 매형
지 칭 어	부모에게	누나	매부, 매형
	동기에게	누나, 누님	매부, 매형, 형부
	자녀에게	고모(님)	고모부(님)
	처가 쪽 사람 및 타인에게	누나, 누님	매부, 매형

		여동생	여동생의 남편
호 칭 어		○○[이름], 동생	매부, ○ 서방
지 칭 어	부모에게	○○[이름], 동생	매부, ○ 서방
	동기에게	○○[이름], 동생	매부, ○ 서방
	처가 쪽 사람에게	누이동생	매부
	자녀에게	고모(님)	고모부(님)
	타인에게	누이동생	매부, ○ 서방

여자의 경우

		오빠	오빠의 아내
호 칭 어		오빠, 오라버니(님)	(새)언니
지 칭 어	당사자에게	오빠, 오라버니(님)	(새)언니
	부모에게	오빠, 오라버니	(새)언니, 올케
	동기에게	오빠, 오라버니(님), 형(님)	(새)언니, 올케, 형수님
	시댁 쪽 사람 및 타인에게	(친정) 오빠, (친정) 오 라버니, ○○ 외삼촌	(새)언니, 올케, ○○ 외숙모
	자녀에게	외삼촌, 외숙부(님)	외숙모(님)

		남동생	남동생의 아내
호 칭 어		○○[이름], 동생	올케
지 칭 어	부모에게	○○[이름], 동생	올케
	동기에게	○○[이름], 동생, 형(님), 오빠	올케, 형수님, (새)언니
	시댁 쪽 사람에게	친정 동생, ○○ 외삼촌	올케, ○○ 외숙모
	자녀에게	외삼촌, 외숙부(님)	외숙모(님)
	타인에게	(친정) 동생, ○○ 외삼촌	올케, ○○ 외숙모

		언니	언니의 남편
호 칭 어		언니	형부
지 칭 어	친정 쪽 사람에게	언니	형부, 매부
	시댁 쪽 사람 및 타 인에게	언니, ○○ 이모	형부, ○○ 이모부
	자녀에게	이모(님)	이모부(님)

		여동생	여동생의 남편
호 칭 어		○○[이름], 동생	○ 서방(님)
지 칭 어	당사자에게	○○[이름], 동생	○ 서방(님)
	부모에게	○○[이름], 동생	○ 서방
	동기에게	○○[이름], 동생, 누나, 언니	○ 서방, 매부, 형부
	시댁 쪽 사람 및 타 인에게	친정 여동생, ○○ 이모	○○ 이모부, 동생의 남편
	자녀에게	이모(님)	이모부(님)

형의 아내는 '아주머님', '형수님'으로 부른다. 누나의 남편을 부르는 말의 표준안은 '매부'와 '매형'으로 했다. '자형'도 표준안에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자형'은 주로 전라도, 경상도 지방에서 쓰는 말로 아직 보편성이 없어 표준안에서는 제외했다. 오빠의 아내는 '(새)언니', 남동생의 아내는 '올케'로 부른다. 여자의 경우 여동생의 남편을 '김 서방', '이 서방'하고 부르지만, 자신보다 여동생의 남편이 나이가 많을 때는 '님'을 넣어 '김 서방님', '이 서방님'하고 부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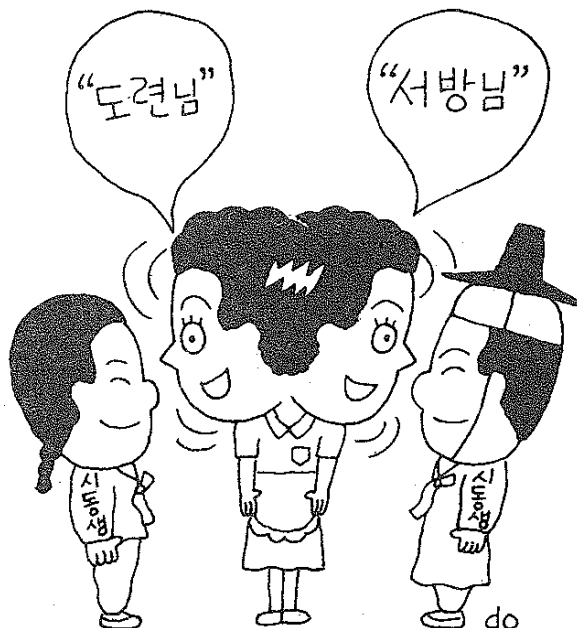
7. 남편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한 호칭·지칭어

남편의 형

호 칭 어		아주버님
지 칭 어	시댁 쪽 사람에게	아주버님
	친정 쪽 사람에게	시아주버니, ○○ 큰아버지
	자녀에게	큰아버지(큰아버님)/ (○째 큰아버지)/ ((지역 이름) 큰아버지)
	타인에게	시아주버니, ○○ 큰아버지

남편의 아우

호 칭 어	미 혼	도련님, (○째 도련님)	
	기 혼	서방님, (○째 서방님)	
지 칭 어	시댁 쪽 사람에게	미 혼	도련님
		기 혼	서방님
	친정 쪽 사람에게		시동생, ○○ 작은아버지, ○○ 삼촌
	자녀에게	미 혼	삼촌
		기 혼	작은아버지(작은아버님)
타인에게		시동생, 도련님, 서방님, ○○ 작은 아버지, ○○ 삼촌	



남편의 누나

호 칭 어		형님
지 칭 어	시댁 쪽 사람에게	형님
	친정 쪽 사람에게	시누이, ○○ 고모
	자녀에게	고모(님)
	타인에게	시누이, ○○ 고모

남편의 누이동생

호 칭 어		아가씨, 아기씨
지 칭 어	시댁 쪽 사람에게	아가씨, 아기씨
	친정 쪽 사람에게	시누이, ○○ 고모
	자녀에게	고모(님)
	타인에게	시누이, ○○ 고모, 아가씨, 아기씨

남편 형의 아내

호 칭 어		형님
지 칭 어	시댁 쪽 사람에게	형님
	친정 쪽 사람 및 타인에게	큰동서(맏동서), ○○ 큰어머니
	자녀에게	큰어머니(님)

남편 아우의 아내

호 칭 어		동서
지 칭 어	시댁 쪽 사람에게	동서
	친정 쪽 사람 및 타인에게	동서, ○○ 작은어머니
	자녀에게	작은어머니(님)

남편 누이의 남편

		남편 누나의 남편	남편 누이동생의 남편
호 칭 어		아주버님, 서방님	서방님
지 칭 어	자녀에게	고모부(님)	고모부(님)
	자녀 외의 사람 들에게	(지역 이름) 아주버님, (지역 이름, 姓) 서방님, ○○ 고모부(님)	(지역 이름, 姓) 서방님, ○○ 고모부(님)

가족 호칭은 문화적, 지역적 차이뿐만 아니라 집안에 따라 미묘한 차이점까지 있어서 시댁에서의 호칭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지기도 한다.

남편의 형이 결혼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부르고, 자녀에게 어떻게 가리키느냐 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이다. 남편의 형은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아주버님’이라고 부르고, 자녀에게는 ‘큰아버지한테 다녀 오너라.’와 같이 항상 ‘큰아버지’로 지칭한다. 남편의 누이동생을 부르는 말로는 <표>에 있는 말 외에도 ‘작은아씨’가 있다. 이 말은 일부 사대부집에서 쓰던 말로 지금도 쓰이고 있지만 보편성이 없어 표준안에서는 제외되었다. 그리고 남편의 누이동생은 결혼을 해도 ‘아가씨’, ‘아기씨’하고 부른다.

시누이 남편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시댁에서의 호칭 가운데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전통적으로 시누이 남편과 처남의 맥은 서로 내외를 하는 사이여서 서로를 부를 일도 없었고 부르는 말도 없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서 시누이 남편을 부를 일이 많아졌고, 부르는 말도 필요하게 되었다. ‘아주버님’은 현재 여러 지역에서 순위 시누이 남편을 부르는 말로 쓰고 있고, ‘서방님’은 일부 사대부 집안에서 전통적으로 순위, 손아래 시누이 남편을 가리키는 말로 썼다. 그리고 ‘아주버님’은 남편의 형을 부르는 말과 같아서 남편의 순위 사람을 부르는 말로 손색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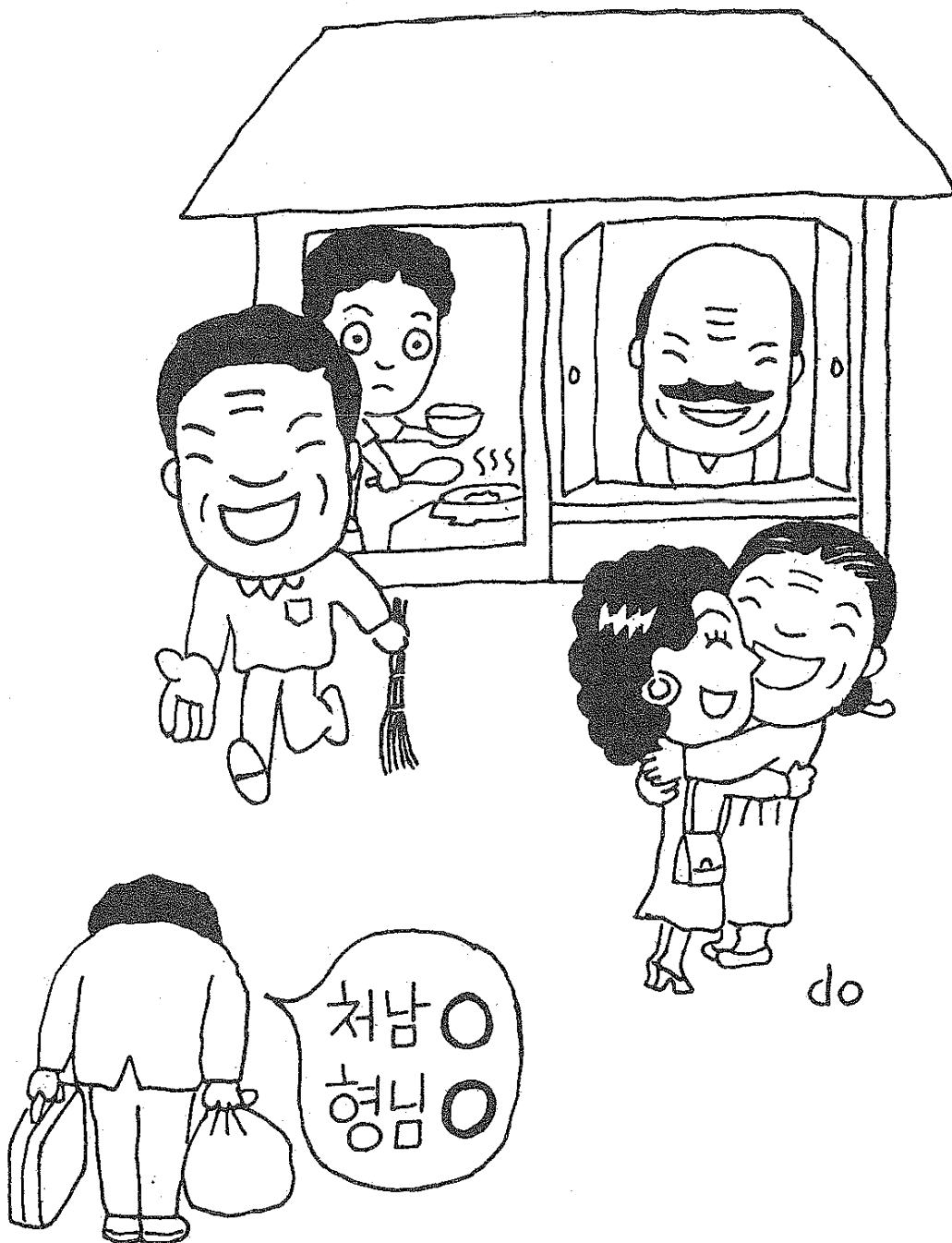


8. 아내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한 호칭·지칭어

		아내의 오빠	아내의 남동생	아내의 언니	아내의 여동생	
호 칭 어		형님, 처남[연하]	처남, ○○[이름]	처형	처제	
지 칭	당사자에게	형님, 처남[연하]	처남, 자네	처형	처제	
	아내에게	형님, 처남[연하]	처남, ○○[이름]	처형	처제	
	부모, 동기, 타인에 게	처남, ○○ 외삼촌	처남, ○○ 외삼촌	처형, ○○ 이모	처제, ○○ 이모	
	장인 장모에게	형님, 처남[연하]	처남, ○○[이름]	처형	처제	
어	당사 자의	손위 동기와 배우자에게	형님, 처남[연하]	처남, ○○[이름]	처형	처제
		손아래 동기에게	[그들이 부 르는 대로]	[그들이 부 르는 대로]	[그들이 부 르는 대로]	[그들이 부 르는 대로]
	자녀에게	외삼촌, 외숙부(님)	외삼촌, 외숙부(님)	이모(님)	이모(님)	

		아내 오빠 의 부인	아내 남동 생의 부인	아내 언니 의 남편	아내 여동 생의 남편	
호 칭 어		아주머니	처남의 댁	형님, 동서	동서, ○ 서방	
지 칭	당사자에게	아주머니	처남의 댁	형님, 동서	동서, ○ 서방	
	아내에게	처남의 댁	처남의 댁	형님, 동서	동서, ○ 서방	
	부모, 동기, 타인에 게	처남의 댁, ○○외숙모	처남의 댁, ○○외숙모	동서, ○○ 이모부	동서, ○○ 이모부	
	장인 장모에게	처남의 댁	처남의 댁	형님, 동서	동서, ○ 서방	
어	당사자의 시댁 및 처가의	손위 동기와 배우자에게	처남의 댁	처남의 댁	형님, 동서	동서, ○ 서방
		손아래 사람 에게	[그들이 부 르는 대로]	[그들이 부 르는 대로]	[그들이 부 르는 대로]	[그들이 부 르는 대로]
	자녀에게	외숙모(님)	외숙모(님)	이모부(님)	이모부(님)	

아내의 오빠인 처남을 부르는 말은 '처남'이었고 처가 쪽의 서열에 관계없이 나이로 위아래가 정해졌다는 것이 전통 윤리에 밝은 분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아내의 오빠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더라도 '형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형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아내의 오빠가 자신보다 나이가 적으면 '처남'으로 부를 수 있다. 동서도 마찬가지이다.



9. 숙질간의 호칭 · 지칭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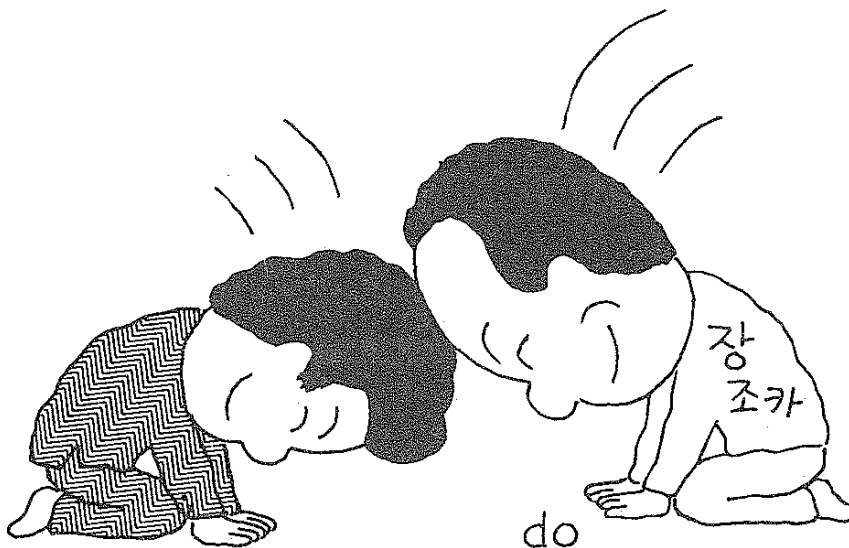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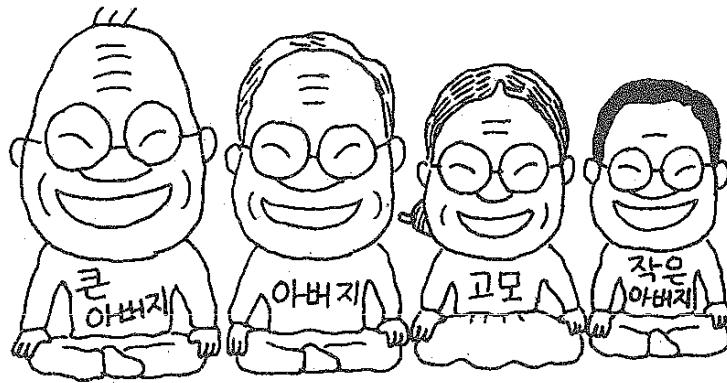
	호칭어 및 당사자에게 지칭	지 칭 어		
		말하는 사람의 자녀에게	당사자의 자녀에게	그 밖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형	큰아버지	(지역 이름)큰할아버지(큰할아버님), 종조할아버지(종조할아버님), 종조부(님), (지역 이름)할아버지(할아버님)	큰아버지, 아버지(아버님), 아빠	큰아버지, 백부 [아버지의 맏형만]
아버지 형의 아내	큰어머니	(지역 이름)큰할머니(님), 종조할머니(님), 종조모(님), (지역 이름)할머니(님)	큰어머니, 어머니(님), 엄마	큰어머니, 백모 [아버지의 맏형의 아내만]
아버지의 남동생	미혼-삼촌, 아저씨 기혼-작은 아버지	(지역 이름)작은할아버지(작은할아버님), (작은)종조할아버지(종조할아버님), (작은)종조부(님), (지역 이름)할아버지(할아버님)	작은아버지, 아버지(아버님), 아빠	미혼-삼촌, 아저씨 기혼-작은아버지, 숙부
아버지 동생의 아내	작은어머니	(지역 이름)작은할머니(님), (작은)종조할머니(님), (작은)종조모(님), (지역 이름)할머니(님)	작은어머니, 어머니(님), 엄마	작은어머니, 숙모
아버지의 누이	고모, 아주머니	대고모(님), 왕고모(님), (고모할머니(님)), ((지역 이름)할머니(님))	고모, 어머니(님), 엄마	고모
아버지 누이의 배우자	고모부, 아저씨	대고모부(님), 왕고모부(님), (고모할아버지(고모할아버님)), ((지역 이름)할아버지(할아버님))	고모부, 아버지(아버님), 아빠	고모부, 고숙
어머니의 남자 형제	외삼촌, 아저씨	진외할아버지(진외할아버님), 진외종조부(님), (지역 이름)할아버지(할아버님)	외삼촌, 외숙부, 아버지(아버님), 아빠	외삼촌, 외숙

	호칭어 및 당사자에게 지칭	지 칭 어		
		말하는 사람의 자녀에게	당사자의 자녀에게	그 밖의 사람들에게
어머니 남자 형제의 배우자	외숙모, 아주머니	진외할머니(님), (지역 이름)할머니(님)	외숙모, 어머니(님), 엄마	외숙모
어머니의 자매	이모, 아주머니	이모할머니(님), (지역 이름)할머니(님)	이모, 어머니(님), 엄마	이모
어머니 자매의 배우자	이모부, 아저씨	이모할아버지(이모할아버님), (지역 이름)할아버지(할아버님)	이모부, 아버지(아버님), 아빠	이모부, 이숙

			남자 조카	조카의 아내	여자 조카	조카의 남편
호칭어 및 당사자에게 지칭			미성년- ○○[이름] 성년-조카, ○○ 아버지, ○○ 아범	아가, 새아가, ○○ 어머니, ○○ 어멈, 질부[姪婦], 생질부[甥姪婦]	미성년- ○○[이름] 성년-조카, ○○ 어머니, ○○ 어멈	○ 서방, ○○ 아버지, ○○ 아범
지칭어	당사자 외의 사람들에	친조카	조카	조카며느리, 질부[姪婦]	조카딸, 질녀[姪女]	조카사위, 질서[姪壻]
		누이의 자녀	생질[甥姪]	생질부[甥姪婦]	생질녀[甥姪女]	생질서[甥姪壻]

여기서는 편의상 숙질간을 부모의 동기(그 배우자)와 동기의 자녀(그 배우자)로 한정하여 논의 하였다. 당사자의 자녀에게 지칭할 때는, 말하는 사람의 처지에 서서 '큰아버지 계시냐?' 할 수도 있고 듣는 사람의 처지에 서서 '아버지 계시냐?'고 할 수 있다. <표>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처가 쪽 숙질간의 호칭어는 아내가 부르는 대로 하고 지칭어는 그 앞에 '처'를 붙인다.

조카가 삼촌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와 같이 나이가 뒤바뀐 숙질간에도 호칭이나 지칭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어렸을 때에는 서로 말을 놓고 지내더라도 성년이 되어서는 조카가 삼촌보다 나이가 다섯 살 이상 위이면 서로 존대하고, 나이 차가 다섯 살 미만이면 항렬을 따라야 한다. 한편 장조카인 경우는 예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10. 사돈간의 호칭·지칭어

같은 항렬

	자식 배우자(며느리, 사위)의 부모 및 삼촌 항렬			
	남자가 사돈 쪽 남자를	남자가 사돈 쪽 여자를	여자가 사돈 쪽 여자를	여자가 사돈 쪽 남자를
호칭어 및 당사자에게 지칭	사돈 어른, 사 돈	사부인	사부인, 사돈	사돈 어른(발 사돈)
자기 쪽 사 람에게	부모 : 사돈, ○○ (외)할아 버지	사부인, ○○ (외)할머 니	사부인, ○○ (외)할머 니	사돈 어른, ○○ (외)할아 버지(발사돈)
	삼촌 : 사돈, [관계말]	사부인, [관계말]	사부인, [관계말]	사돈 어른, [관계말]
사돈 쪽 사 람에게	부모 : 사돈 어 른, 사돈, ○○ (외)할아 버지	사부인, ○○ (외)할머 니	사부인, ○○ (외)할머 니	사돈 어른, ○○ (외)할아 버지
	삼촌 : 사돈 어 른, 사돈, [관계말]	사부인, [관계말]	사부인, [관계말]	사돈 어른, [관계말]

	동기 배우자(형수, 올케 등)의 동기 및 그 배우자	
	남 자	여 자
호칭어 및 당사 자에게 지칭	사돈, 사돈 도령, 사돈 총각	사돈, 사돈 처녀, 사돈 아가 씨
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지칭	사돈, 사돈 도령, 사돈 총 각, [관계말]	사돈, 사돈 처녀, 사돈 아가 씨, [관계말]

위 항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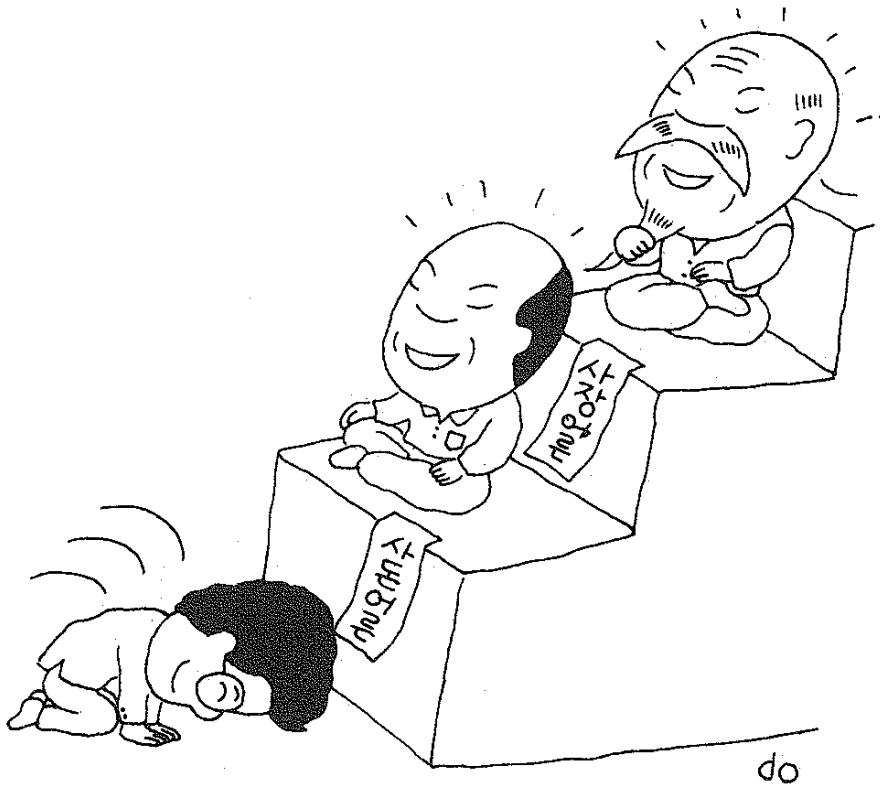
	자녀 배우자(며느리, 사위)의 조부모, 동기 배우자(형수, 올케 등)의 부모
호칭어 및 당사자 에게 지칭	사장 어른
당사자 이외의 사 람에게 지칭	사장 어른, [관계말]

아래 항렬

	자녀 배우자(며느리, 사위)의 동기 및 조카, 동기 배우자(형수, 올케 등)의 조카	
	남 자	여 자
호칭어 및 당사자에게 지칭	사돈, 사돈 도령, 사돈 총각	사돈, 사돈 처녀, 사돈 아가씨
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지칭	사돈, 사돈 도령, 사돈 총각, [관계말]	사돈, 사돈 처녀, 사돈 아가씨, [관계말]

사돈을 부르는 말은 항렬, 나이, 성별에 따라 다르다. 위 항렬의 사돈은 '사장 어른'이라 부른다. 같은 항렬, 같은 성별일 때는 두 사람이 친밀하거나 상대방이 나이가 어리면 '사돈'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상대방의 나이가 위인 경우에는 '사돈 어른'이라고 부른다.

〈표〉에서 [관계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손자의 이름을 넣은 '철수 작은(외)할아버지', '철수 이모' 등을 말한다.



11. 직장에서의 호칭·지칭어

	직 함	호칭어 및 지칭어
동료를	직함 없음	○○○(○○) 씨,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 선배, ○ 형, (○○) 언니, ○(○○) 여사
	직함 있음	○ 과장, ○○○(○○) 씨, 선생님, ○ 선생 (님), ○○○ 선생(님), ○ 선배, ○ 형, ○(○○) 여사
상사를	직함 없음	선생님, ○(○○) 선생님, ○(○○) 선배님, ○(○○) 여사
	직함 있음	부장님, ○(○○) 부장님, (총무) 부장님
아래 직원을	직함 없음	○○○ 씨, ○ 형, ○ 선생(님), ○○○ 선생 (님), ○(○○) 여사, ○ 군, ○ 양
	직함 있음	○ 과장, 총무과장, ○○○ 씨, ○ 형, ○ 선생(님), ○○○ 선생(님)

직장에서의 호칭·지칭어를 다룰 때, 특수 전문 직종에서 쓰이는 호칭어는 논의하지 않았다. 또한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실을 받아들여 '형', '언니', '여사'와 같이 성별이 구분되는 것은 포함했다.

지칭 대상이 말하는 사람보다 직급이 높은 경우에는 듣는 사람의 직위나 나이에 관계없이 직함에 '님'을 넣어 '과장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와 같이 하는 것이 우리의 언어 예절이다.



12. 타인에 대한 호칭·지칭어

친구의 아내

호칭어 및 당사자에게 지칭		아주머니, (○)○○ 씨, ○○ 어머니, 부인, ○ 여사, ○ 과장(님)
지칭어	해당 친구에게	(자네) (합)부인, ○○ 어머니
	아내에게	○○ (씨) 부인, ○○ 어머니, ○ 과장 부인
	자녀에게	○○ 어머니, (지역 이름) 아주머니
	다른 친구에게	○○ (씨) 부인, (○)○○ 씨, ○○ 어머니, ○ 과장 부인

친구의 남편

호칭어 및 당사자에게 지칭		(○)○○ 씨, ○○ 아버지, (○) 과장님, (○) 선생님
지칭어	해당 친구에게	(○)○○ 씨, ○○ 아버지, (○) 과장님, 너희 남편(바깥 양반)
	남편에게	○○ 남편(바깥 양반), (○) 과장님
	자녀에게	○○ 아버지, (지역 이름) 아저씨, (○) 과장님
	다른 친구에게	○○ 남편(바깥 양반)

남편의 친구

호칭어 및 자녀 이외의 사람에게 지칭	(○)○○ 씨, ○○ 아버지, (○) 과장님, (○, ○○○) 선생님
자녀에게 지칭	○○ 아버지, (지역 이름) 아저씨, (○) 과장님

아내의 친구

호칭어 및 당사자에게 지칭		(○)○○ 씨, ○○ 어머니, 아주머니, ○ 선생님(님), ○ 과장(님), ○ 여사(님)
지칭어	아내에게	(○)○○ 씨, ○○ 어머니, ○ 과장, ○ 선생
	자녀에게	(지역 이름) 아주머니, ○○ 어머니

아버지의 친구

호칭어 및 지칭어	어린이의 말	(지역 이름) 아저씨, ○○ 아버지
	어른의 말	(지역 이름) 아저씨, 어르신, 선생님, (○) 과장님

어머니의 친구

호칭어 및 지칭어	어린이의 말	(지역 이름) 아주머니, ○○ 어머니(엄마)
	어른의 말	(지역 이름) 아주머니, ○○ 어머니

친구의 아버지

호칭어 및 당사자에게 지칭	어린이의 말	○○ 아버지, (지역 이름) 아저씨
	어른의 말	(○○) 아버님, 어르신, ○○ 할아버지
친구에게 지칭	어린이의 말	너희 아버지
	어른의 말	(자네) 아버지(아버님), 어르신, 춘부장

친구의 어머니

호칭어	어린이의 말	○○ 어머니(엄마), (지역 이름) 아주머니
	어른의 말	(○○) 어머님, 아주머니, ○○ 할머니
당사자 및 해당 친구에게 지칭	어린이의 말	○○ 어머니(엄마), (지역 이름) 아주머니
	어른의 말	(○○) 어머님, 아주머니, ○○ 할머니, 자당

여자 선생님의 남편

(학부모 또는 학생의 편에서)

호칭어	師夫님, (○, ○○○) 선생님, (○) 과장님
당사자 및 해당 선생님에게 지칭	師夫님, (○, ○○○) 선생님, (○) 과장님, 바깥 어른

남자 선생님의 아내

호칭어 및 지칭어	사모님
-----------	-----

직장 상사의 가족

		부 인	남 편	자 녀
호칭어		사모님, 아주머니(님)	(○,○○○)선생님, (○,○○○)과장님	○○[이름], ○○○씨, (○)과장(님)
지 칭 어	당사자에게	사모님, 아주머니(님)	(○,○○○)선생님, (○,○○○)과장님	○○[이름], ○○○ 씨, (○)과장(님), 아드님, 따님, 자제분
	해당 상사에게	사모님, 아주머니(님)	(○,○○○)선생님, (○,○○○)과장님, 바깥 어른	○○[이름], ○○○ 씨, (○)과장(님), 아드님, 따님, 자제분
	다른 사람에게	사모님, (○, ○○○)과장 (님) 부인(사 모님)	(○,○○○)과장 (님) 바깥 어른(바 깥 양반)	(○,○○○)과장(님) 아드님(따님, 자제분)

직장 동료 및 아랫사람의 가족

		부 인	남 편	자 녀
호칭어		아주머니(님), 부인	(○,○○○)선생 (님), (○,○○○) 과장(님)	○○[이름], ○○○씨, (○)과장(님)
지 칭 어	당사자에게	아주머니(님), 부인	(○,○○○)선생 (님), (○,○○○)과장 (님)	○○[이름], ○○○씨, (○)과장(님), 아들(아드님), 따님, 자제분
	해당 동료 및 해당 아 랫사람에게	아주머니(님), (자네) (합) 부인	(○,○○○)선생 (님), (○,○○○) 과장(님), 부군, 바깥 양반	○○[이름], ○○○씨, (○)과장(님), 아들(아드님), 따님, 자제분
	다른 사람에게	(○,○○○) 과장(님) 부 인, ○○○씨 부인	(○,○○○)과장 (님) 남편(바깥 양 반), ○○○씨 남 편(바깥 양반)	(○,○○○)과장(님) 아드님(아들, 따님, 자제분)

식당 등의 종업원

	남 자	여 자
호칭어 및 당사자에게 지칭	아저씨, 젊은이, 총각	아주머니, 아가씨
다른 사람에게 지칭	(남자) 종업원	(여자) 종업원

은행, 관공서 등의 직원

	남 자	여 자
호칭어 및 당사자에게 지칭	○○○ 씨, (○) 과 장 (님), 선생(님)[시안]	○○○ 씨, (○) 과 장 (님), 선생(님)[시안]
다른 사람에게 지칭	○○○ 씨, (○) 과 장 (님), (남자) 직원	○○○ 씨, (○) 과 장 (님), (여자) 직원

식당, 은행, 관공서 등의 손님

	식당 등	은행, 관공서 등
호칭어 및 지칭어	손님	(○○○) 손님

우연히 만난 어른

	남 자			여 자		
	윗사람이	동년배의 사람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이	동년배의 사람이	아랫사람이
호칭어 및 지칭어	선생(님)	선생(님)	어르신(네), 선생님	할머니, 아주머니	할머니, 아주머니	어르신(네), 할머니(님), 아주머니(님)

타인에 대한 호칭·지칭어 가운데는 과거에는 필요하지 않았던 말이 시대가 바뀔에 따라 필요하게 된 말이 있다. 그러므로 현재 쓰이는 말 중에서 전통적이면서도 시대에 맞는 말을 찾는 데 힘을 기울였다.

예전에는 여자 스승이 거의 없어서 그런지 여자 선생님의 남편을 부르는 전통적인 말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여자 스승도 많고 여자 스승의 남편에 대한 호칭·지칭어가 필요하기도 하다. 이 경우에 아직 사전에는 올라 있지 않지만 현재 '사부님'을 많이 쓰고 있어 '사부님'을 표준안으로 했다. 이 때 남자 스승의 아내를 부르는 '사모(師母)님'과 짝이 되도록 '사부(師父)님'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사부(師父)'는 사전에 '가르침의 깊은 은혜를 입은 스승을 높이어 일컫는 말'로 올라 있어, 스승의 남편을 부르고 가르키는 말로는 '사부(師夫)님'을 쓰도록 했다.



13. 자기를 가리키는 말

가족 관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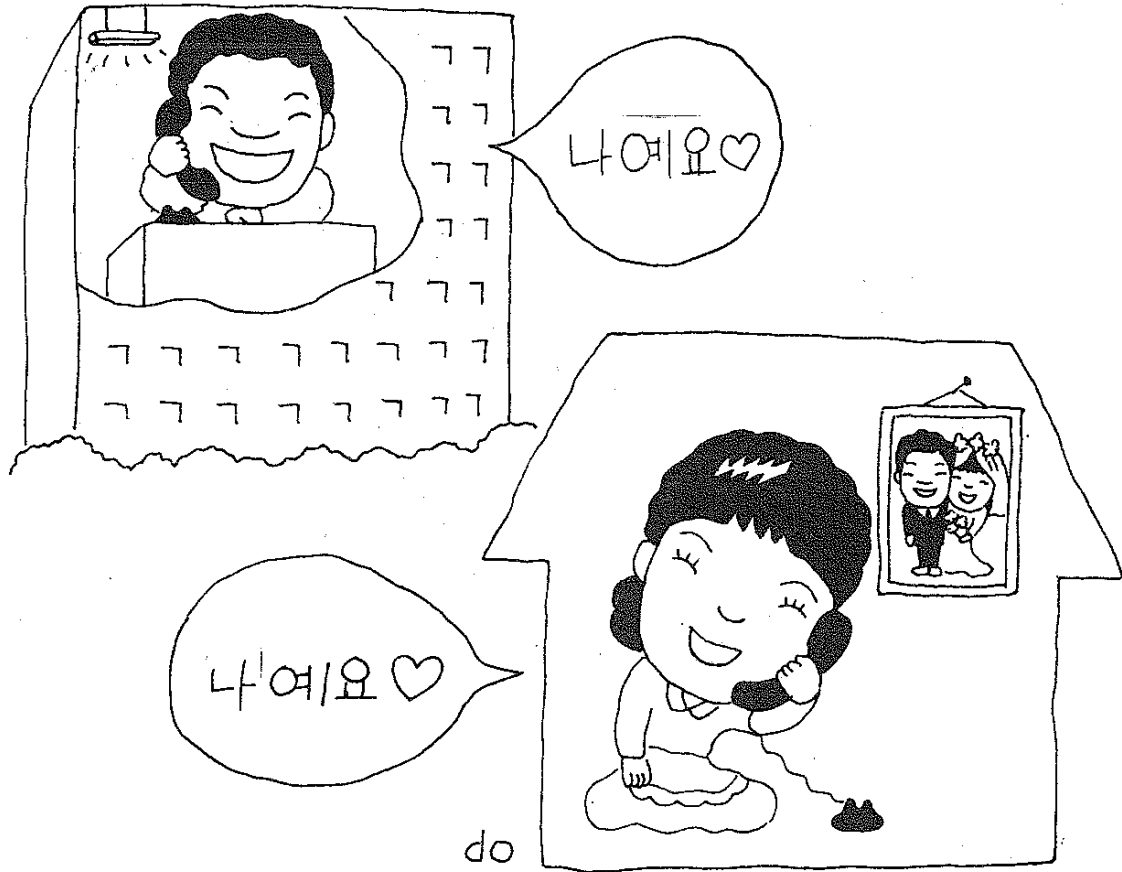
부모님의 친구에게	저희 아버지가 ○(姓) ○자 ○자 쓰십니다. 저희 아버지 함자가 ○(姓) ○자 ○자이십니다. ○○○ 씨/부장님 아들입니다.
자녀의 친구에게	○○○의 아버지이다. ○○○의 아버지이다(아비 되는 사람이다).
자녀의 스승에게	○○○의 아버지입니다(아비되는 사람입니다). (○○○의 아버지입니다.)
동기의 친구에게	○○○ 씨가 제 큰형님입니다(이십니다). ○○○ 씨의 동생입니다
동기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 씨의 동생입니다. ○○○ 씨의 형 되는 사람입니다. 제 동생이 ○○○입니다.
아내(남편)의 친구에게	○○○ 씨의 남편(바깥 사람/아내, 집사람, 안사람, 처)입니다. ○○○ 씨가 제 아내(집사람, 안사람, 처/남편, 바깥 양반)입니다.
아내(남편)의 직장에 전화를 해서	집입니다. ○○ 씨의 남편(바깥 사람/아내, 집사람, 안사람, 처)입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아래 직원에게	사장인데, 총무부 ○ 부장인데
아래 직원이 상사에게	상무이사입니다. 총무부 ○ 부장입니다. 총무부장 ○○○입니다.
다른 회사 사람에게	○○주식회사 상무이사입니다. 총무부 ○ 부장입니다. 총무부장 ○○○입니다. 총무부 ○○○입니다

자기를 가리킬 때는 가족 가운데 상대방이 잘 아는 사람과 자기와의 관계를 밝혀서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직장에서는 직함과 이름을 적절히 사용한다.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 때는 보통 '난데'하거나 '형님이세요? 전데요.'처럼 말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목소리로 판단하게 하거나 상대방을 먼저 부름으로써 상대방이 판단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목소리로 상대방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할 때나 전화의 자동 응답기에 말할 경우와 같이 꼭 자기를 밝혀야 하는 경우가 있다. 부부간에 전화를 할 때는 서로 '나예요'하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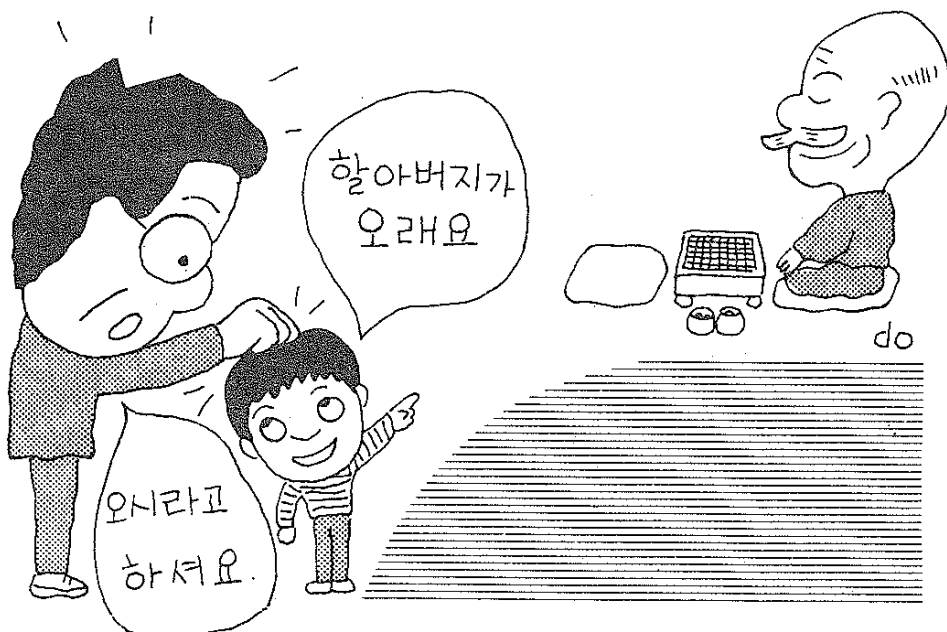
경어법 편

14. 가정에서의 경어법

대 상	경어 사용의 예
아버지를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아버지가 진지 잡수시라고 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진지 잡수시라고 하셨습니다. [허용]
아버지를 선생님께	저희(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을 남편 친구에게	그이(○○ 아버지)는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아들을 손자에게	○○야, 아버지 줌 오라고 해라.

우리 말은 다른 어떤 언어보다도 경어법이 복잡하고 어렵다. 문법적으로는 말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높이는 존경법,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공손법으로 나뉘어 있고, 또 어휘적으로 존대말과 예사말이 나뉘어 있는 경우도 있어 적절한 말을 골라 쓰는 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가정에서의 경어법과 가정과 사회가 겹쳤을 때의 경어법을 다루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남편'에 관하여 말할 때 '남편'을 높이는가 높이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쉽지 않다. 남편을 시부모 등 남편의 순위 사람에게 말할 때는 '아비(아범)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와 같이 낮추어 말한다. 그러나 시동생이나 손아래 친척에게는 '형님 아직 안들어 오셨어요.'처럼 높여 말한다. 남편의 친구나 회사 상사와 같이 가족 이외의 사람에게 말할 때는, 상대방의 신분이 확인되기 전에는 남편과 관련된 서술어에 '-사-'를 넣어 표현하고 남편의 친구나 상사라는 것이 확인되면 '-사-'를 넣지 않는 것이 무난하다.



15. 직장, 사회에서의 경어법

직장 안의 사람들에게

동료끼리	나이가 비슷할 때	거래처에 전화했어요?
	나이가 위일 때	거래처에 전화하셨습니까?
윗사람에게	어느 경우에도	거래처에 전화하셨습니까?
아랫사람에게	일반적으로	거래처에 전화했어요?
	어리고 친밀한 경우	거래처에 전화했니?

직장 밖의 사람들에게

다른 직장의 사람들에게		많이 기다리셨습니까?
관공서에서 손님을 맞을 때		도장 가지고 오셨습니까?
관공서 직원에게		이제 다 되었습니까?
버스 등에 서	어른에게	제가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좀 비켜주시겠습니까?
	어른이 청소년에게	좀 지나가도 될까?

직장 안에서 윗사람에 대하여 말할 때는 듣는 사람의 직급에 관계없이 서술어에 '-시-'를 넣어 말한다. 즉 6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을 4급 공무원에게 말할 때도 '과장님, 계장님 어디 가셨습니까?'하고 말한다.

우리 직장의 사람을 다른 직장의 사람에게 말할 때, 일반적으로 평사원에 관해 말할 때는 듣고 있는 다른 회사 사람의 직급에 관계없이 '-시-'를 넣지 않는다. 직급이 있으나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그 사람과 같은 직급 이하의 사람에게 말할 때는 높여 말하고 그 사람 직급 이상의 사람에게 말할 때는 높이지 않는다. 자기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을 다른 회사 사람에게 말할 때는 상대방의 직급에 관계없이 '-시-'를 넣어 높인다.

인사말 편

16. 아침, 저녁 인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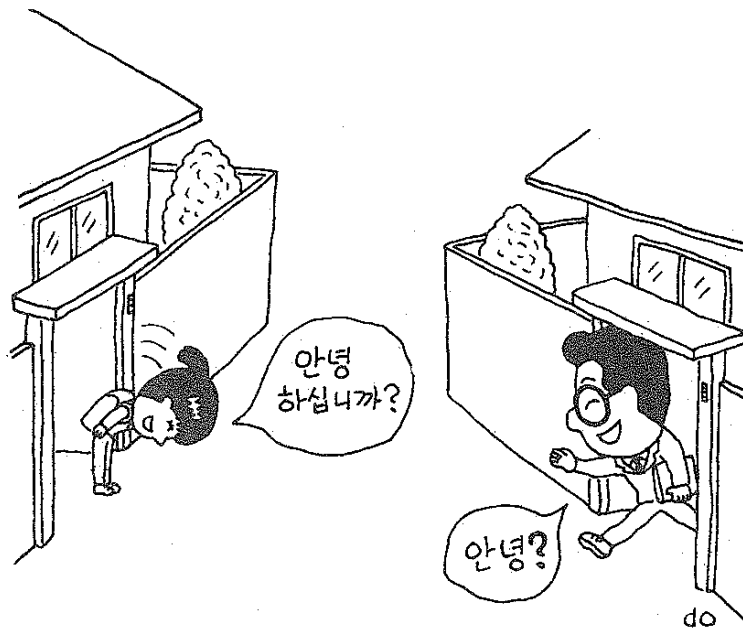
아침 인사

	집 안에서	이웃 사람에게	직장에서
윗사람에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진지 잠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진지 잠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다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동년배와 손아래인 성인(이웃 사람), 동료(직장)에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하세요?
아랫사람에게	잘 잤어요? 잘 잤니?	안녕? 잘 잤니?	안녕하세요? 나왔군. 나오나.

저녁(잠자기 전) 인사

	집에서
윗사람에게	안녕히 주무십시오.
아랫사람에게	잘 자. 편히 쉬게.

언제 하는 인사가 아침 인사인지 그 시간을 정확히 말할 수는 없다. 집안 식구, 이웃 사람에게는 대체로 아침 먹을 즈음에 인사를 할 경우를 말하고, 직장에서는 출근하자마자 하는 인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저녁 인사는 잠자기 직전 집에서 한다.



17. 만나고 헤어질 때의 인사말

집 에 서	나가는 사람이 보내는 사람이	다녀 오겠습니다. 안녕히 다녀 오십시오.
	들어오는 사람이 마중하는 사람이	다녀 왔습니다. 다녀 오셨습니까?
오랜만에 만나는 어른에게 오래 헤어져 있을 사람에게		그 동안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다녀 오십시오.
거리에서 이웃사람에게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어디 다녀 오십니까?
직 장 에 서	만날 때	안녕하십니까?
	나가는 사람이	먼저 나가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남아 있는 사람이	안녕히 가십시오.
식사 시간 전후에 만났을 때		(점심) 잡수셨습니까? (점심) 드셨습니까?
버스, 승강기, 지하철 등 탈 것에서	탈 때	안녕하십니까?
	먼저 내리면서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먼저 내리겠습니다.
	내리는 사람에게	안녕히 가십시오.

특정한 시간에 관계 없이 만나고 헤어질 때 할 수 있는 인사를 '만나고 헤어질 때의 인사말'로 다루었다. 직장에서 이미 한 번 인사를 한 뒤에 또 마주친 경우에는 가볍게 고개만 숙여도 충분하다. 그러나 그 날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안녕하십니까?'하고 인사를 한다. 물론 상대방에 따라 '안녕하세요?'하고 말할 수 있고, 상대방의 상황에 대한 관심의 표명을 인사말로 할 수도 있다.

18. 소개 인사말

자기 자신을 직접 소개할 때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자신을 남에게	처음 뵙겠습니다(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무개입니다.
[아버지에게 기대어 자신을 소개할 때]	저의 아버지는(아버지의 함자는) ○자 ○자 이십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처음 뵙겠습니다. 아무개입니다. [정형] 안녕하십니까? 아무개입니다. [허용]

중간에서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

- (1) 친소 관계를 따져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먼저 소개한다.
 - (2) 손아래 사람을 손위 사람에게 먼저 소개한다.
 - (3) 남성을 여성에게 먼저 소개한다.
-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섞여 있을 때에는 (1), (2), (3)의 순서로 적용한다.

낯선 사람끼리 만났을 때 자신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인사말은 매우 다양하다. <표>에 제시한 것은 가장 널리 쓰이면서도 어느 경우에도 두루 쓸 수 있는 말이다.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보통 ‘처음 뵙겠습니다. 아무개입니다.’ 할 수 있지만, 아는 사람도 그 중에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럴 경우에는 ‘안녕하십니까? 아무개입니다.’가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



19. 송년, 신년 인사말

	인 사 말	비 고
송년 인사	[없다]	상대방에 대한 감사의 뜻과 한 해 동안의 수고에 대한 치하의 뜻을 포함. [예] 한 해 동안 보살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년 인사 덕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게. 소원 성취하게.	
연하장의 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개인적인 인사는 편지를 쓰듯이 정감이 담겨 있고 정중하게 한다.

우리에게는 전통적으로 묵은 세배라는 것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옛날과 같은 묵은 세배를 고집할 수는 없다. 오늘날에는 정초에 일이 있어 가 뵙지 못할 경우에 연말에 찾아 뵙고 송년 인사와 신년 인사를 겸해서 세배를 할 수 있다.

집안에서 친척 친지에 대한 신년 인사는 세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게 된다. 세배는 원칙적으로 절하는 자체가 인사이기 때문에 절 받는 어른에게 특별히 말을 할 필요가 없고, 절을 받은 어른이 덕담을 하게 된다. 만약 절을 한 뒤 어른의 덕담이 곧 이어 나오지 않을 때나 덕담이 있은 뒤에 어른께 말로 인사를 할 경우에는 ‘과세 안녕하십니까?’ 정도가 좋다.



20. 생일 축하 인사말

인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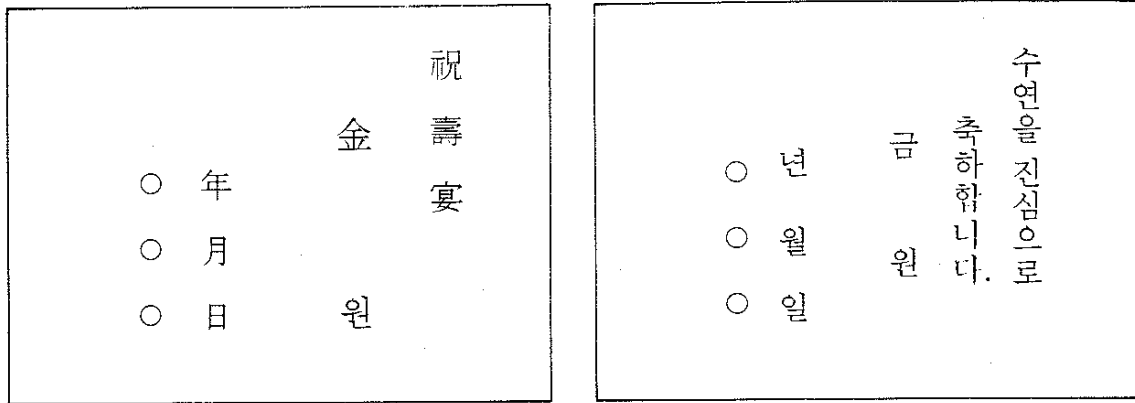
		인 사 말
돌 때	아기 부모에게	축하합니다.
	아기에게	건강하게 자라라.
동년배나 손아래 사람의 생일에 부모와 당사자에게		(생일) 축하합니다(축하한다).
환갑, 고희 등의 생일에	본인에게	(생신) 축하합니다. 더욱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강녕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축하합니다.
	잔치 준비한 자녀에게	축하하네. 수고했네.
환갑, 고희 등의 잔치에서 현수할 때의 말		더욱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만수무강하십시오.

특별한 생일(나이)의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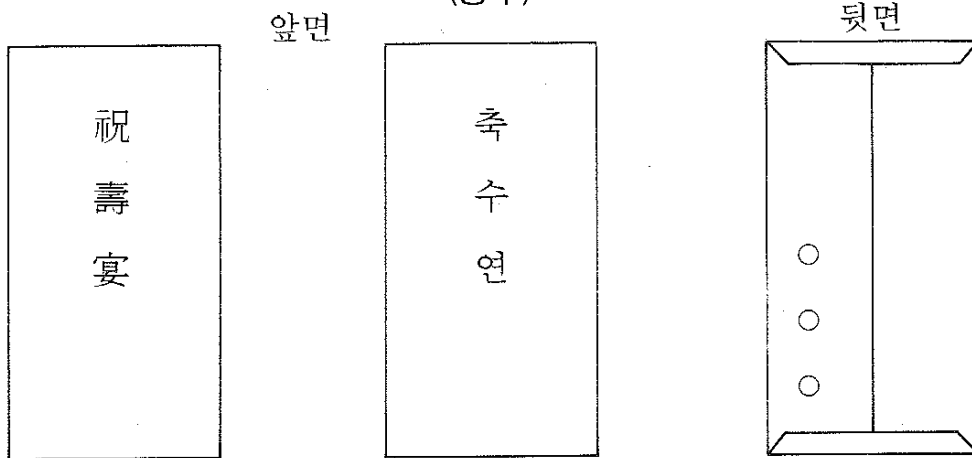
※ 연령은 세는 나이임.

연령	이 름		연령	이 름
60세	육순(六旬)		77세	희수(喜壽)
61세	환갑(還甲), 회갑(回甲), 화갑(華甲)		80세	팔순(八旬)
62세	진갑(進甲)		88세	미수(米壽)
70세	칠순(七旬), 고희(古稀)		90세	구순(九旬)
			99세	백수(白壽)

〈단자〉



〈봉투〉



(○○○은 보내는 사람의 이름)

생일 잔치를 가리키는 말로 '수연(壽宴)', '수연(壽筵)', '수연(晬宴)'이 쓰이고 있다. '壽筵'과 '壽宴'은 엄밀하게 말하면 구별되는 말이다. '壽宴'은 손님을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는 '잔치'를 뜻하고 '壽筵'은 잔치를 베푼다는 뜻이 없이 그냥 생일의 자리를 뜻한다. 그러나 잔치를 베푼 때의 겸사의 뜻으로도 쓸 수 있다. 일반 대중이 '壽宴'과 '壽筵'의 차이를 가려서 쓰기가 쉽지 않으므로 생일 잔치라는 의미로 두 가지를 모두 쓸 수 있다. 그러나 '수연(晬宴)'은 원래 돌잔치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壽宴'이나 '壽筵'을 대신해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봉투 안에 축의금을 넣을 때는 〈표〉와 같이 정성스레 단자를 써서 축의금에 돌려 넣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단자나 봉투를 쓸 때 보통 세로로 쓰지만 가로로 써도 된다.

21. 축하, 위로의 인사말

	대 상	인 사 말	단 자	봉 투
결 혼	본인에게	(결혼을, 혼인을) 축하합니다.	祝 婚姻, 祝 結婚, 祝 華婚, 祝 儀, 賀 儀, 結 婚(혼인)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祝 婚姻, 祝 結婚, 祝 華婚, 祝 儀, 賀 儀
	부모에게	얼마나 기쁘십니까?		
출 산	산모, 남편, 부모에게	축하합니다. 순산하셨다니 반갑습니다.		
정년퇴임		축하합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벌써 정년이 시라니 아쉽습니다.	謹祝, 頌功, (그 동안의) 공적을 기립니다.	謹祝, 頌功, (그 동안의) 공적을 기립니다.
문	본인에게	들어 가서 좀 어떠십니까(어떻습니까)? 얼마나 고생이 되십니까? [불의의 사고일 때] 불행 중 다행입니다.	祈 快癒,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祈 快癒,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나올 때 조리(조섭) 잘 하십시오. 속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	보호자에게	들어 가서 좀 어떠십니까(어떻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나올 때 속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표〉의 경우 외에도 신축, 개업, 이전, 합격, 입학, 졸업, 취직, 승진, 영전, 불합격, 좌천, 재해 등 축하하거나 위로할 일이 있다. 이 때 축하해야 할 일에는 어느 경우에도 상황을 앞에 넣어 ‘(입학을) 축하합니다.’하고 인사를 하고, 좋지 않은 일일 경우에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점을 찾아내어 그 점을 드러내 인사하는 정신이 중요하다.

상가에 가서 죽은이에게 예를 올리고 유족을 위로하는 것을 요즘은 보통 ‘문상(問喪)’이라고 하고 ‘조문(弔問)’, ‘조상(弔喪)’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원래 ‘조상(弔喪)’은 죽은이에게 예를 표하는 것이고, ‘조문(弔問)’은 상주에게 인사하는 것을 일컬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弔喪’이나 ‘弔問’은 부모상 또는 承重喪(손자가 상주가 된 경우), 남편상에만 쓸 수 있는 말이었다. 아내상, 형제상, 자녀상 그리고 承重喪이 아닌 조부모상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하는 것은 ‘弔慰’ 또는 ‘慰問’으로 달리 지칭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들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어느 경우에도 ‘問喪’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

전통적으로 아버지상을 당한 사람에게는 ‘대고 말씀 무어라 여쭙오리까’, 어머니상을 당한 사람에게는 ‘상사 말씀 무어라 여쭙오리까’라고 부모를 구분해서 말하고, 남편상을 당한 사람에게는 ‘천붕지통(天崩之痛)이 오죽하시겠습니까’, 형제상을 당한 사람에게는 ‘할반지통(割半之痛)이……’, 자녀상을 당한 사람에게는 ‘참척(慘慟)을 당하시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렇게 구분하여 말하는 사람이 드물다.



23. 손님 맞이 인사말

손님을 맞을 때의 인사말

		인 사 말
집		어서 오십시오.
관공서, 회사 등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오셨습니까?
백화점, 가게, 음식점, 다방 등	손님이 들어오면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찾으십니까?)
	손님이 자리에 앉으면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음식점] 무엇을 드릴까요? [다방] 주문하시겠습니까? [공통]
	주문한 것을 놓고	맛있게 드십시오. [음식점]
택 시	어서 오십시오. 어디로 모실까요?	
잔 치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손님을 보낼 때의 인사말

		인 사 말
집		안녕히 가십시오. [손위] 살펴 가십시오. [손위] 잘 가라. [손아래]
관공서, 회사 등		안녕히 가십시오.
백화점, 가게, 음식점, 다방 등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또 찾아 주십시오.)
택 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잔 치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손님의 인사말

		인 사 말
들 어 갈 때	집	안녕하십니까?
	관공서, 회사 등	안녕하십니까? ○○일로 왔습니다. 수고하십니까(수고가 많으십니까). ○○일로 왔습니다.
	택 시	○○까지 가 주십시오.
	잔 치	축하합니다.

		인 사 말
나 올 때	집	(결례가 많았습니다.)안녕히 계십시오.
	관공서, 회사 등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아랫사람에게]
	잔 치	(다녀 가겠습니다/먼저 가겠습니다/안 녕히 계십시오.)

집이나 직장에 손님이 오면 상황에 따라 인사말이 다를 수 있다. <표>에 있는 말은 우리가 익히 알고 쓰고 있는 말 가운데 널리 쓰이면서도 친절한 말을 고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계적, 형식적인 말보다는 친절하고 공손한 마음이 담긴 말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24. 건배할 때의 말

표 준 안	이 밖에 쓸 수 있는 말
○○를 위하여-위하여	건배, 축배, 집배, 지화자-좋다, 드십시다, 듭시다.

우리 민족의 술 마시는 문화에는 여럿이 동시에 잔을 쳐들고 어떤 말을 외치는 관습이 없었다. 그런데 다른 나라 문화의 영향과 국제화 시대를 맞아 공적인 자리이거나 사적인 자리에서 술잔을 동시에 들거나 부딪치는 일이 많아 졌다. 그런 자리에서는 대체로 윗사람이나 모임의 주최자가 그 모임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표>에 있는 말을 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최자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하고 외치면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 '위하여' 하고 외친다.



25. 전화 예절

전화를 받을 때의 말

벨이 울리면 수화기를 들고	집	여보세요. [모범] 여보세요. (지역 이름)입니다. [허용] 네, ○○○(지역 이름)입니다. [후보]
	직장	네, ○○○○입니다.
전화를 바꾸어 줄 때	집	(네,) 잠시/잠깐/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직장	(네,) 잠시/잠깐/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찾는 사람이 없을 때	집	지금 안 계십니다. 들어오시면 뭐라고 전해 드릴까요?
	직장	지금 안 계십니다. 들어오시면 뭐라고 전해 드릴까요?
잘못 걸려 온 전화일 때	집	아닌데요(아닙니다), 전화 잘못 걸렸습니다.
	직장	아닌데요(아닙니다), 전화 잘못 걸렸습니다.

전화를 걸 때의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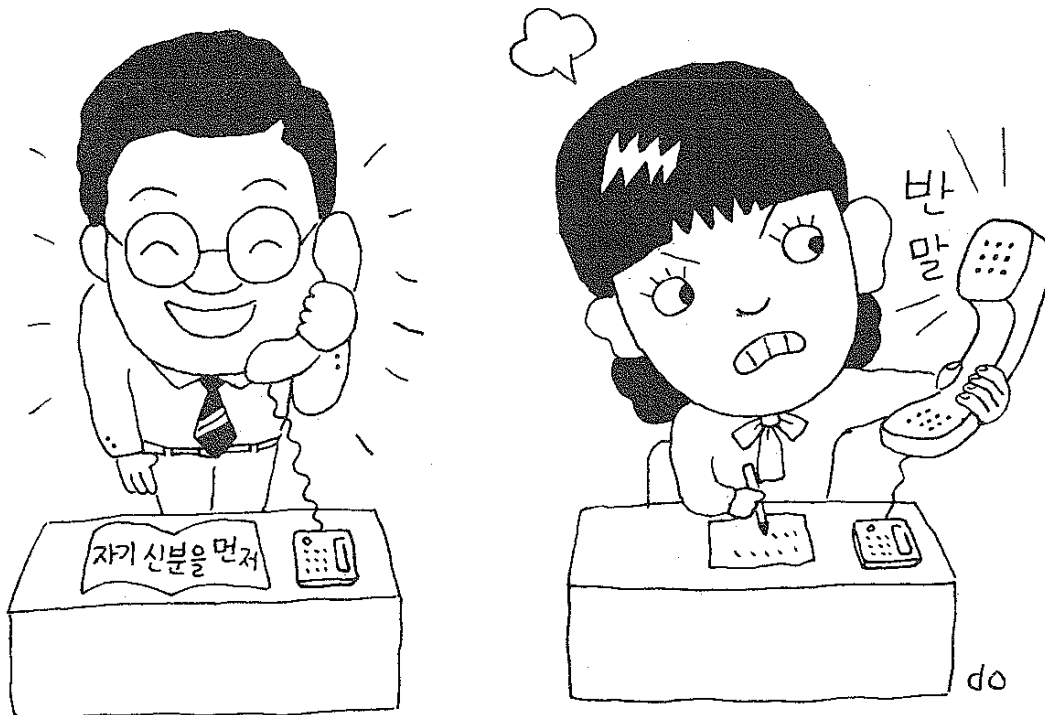
상대방이 응답을 하면	집	안녕하십니까? (저는/여기는) ○○○입니다. ○○○ 씨 계십니까?
	직장	안녕하십니까? (저는/여기는) ○○○인테요. ○○○ 씨 좀 바꿔 주시겠습니까?
통화하고 싶은 사람이 없을 때	집	죄송합니다만 ○○○한테서 전화 왔었다고 전해 주시겠습니까? 말씀 좀 전해 주시겠습니까?
	직장	죄송합니다만 ○○○한테서 전화 왔었다고 전해 주시겠습니까? 말씀 좀 전해 주시겠습니까?
대신 거는 전화	직장	안녕하십니까? ○○○님의 전화인데요, ○○○ 씨를 부탁드립니다. [부탁한 전화가 연결되었을 때] 안녕하십니까? 저는 ○○회사 ○○○입니다. ○○○님의 전화인데요, 바꿔 드리겠습니다.
전화가 잘못 걸렸을 때		죄송합니다(미안합니다), 전화가 잘못 걸렸습니다.

전화를 끊을 때의 말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만 끊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화할 때 상황에 따라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고, 또 그 말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전화기의 벨이 울리면 전화를 받는 쪽이 먼저 말을 해야 하는지 거는 쪽이 먼저 말을 해야 하는지 하는 문제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주로 전화를 받는 쪽이 먼저 말을 한다. 전화를 끊을 때, 뒷사람에게 '수고하세요.'하는 말은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



26. 편지 쓰는 법

	윗사람에게	동료에게	아랫사람에게	회사나 단체에
서 두	아버님 보(시)옵소서, (○○○) 선생 님께(올립니다), (○○○) 부장 님께(드립니다), (○○○)님께 [공적인 편지]	○○○ 선생께, ○○○ 과장에 게, ○ 형 보오	○○에게, ○○ 보아라, ○○○ 군에게, 아우님(제자) 보시게	○○주식회사 귀중
서 명 란	○○○ 올림, ○○○ 드림	○○ 드림	○○○ 씬, ○○○가[허용]	○○주식회사 사장 ○○○ 올 림(드림)
봉투 [받는 사람]	윗사 람에 게	○○○ 귀하, ○○○ 님 (에 게)	○○○ 앞	○○주식회사 귀중, ○○주식회사 ○○○ 사장님, ○○주식회사 ○○○ 사장 귀 하
	부모 님께			

우리가 부모님을 직접 부를 때는 ‘아버지’, ‘어머니’하고 부르지만 편지에는 ‘아버님’, ‘어머님’과 같이 ‘님’을 넣는 것이 전통이다.

과거에는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의 봉투에는 부모님의 함자를 쓰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김철수 本第入納(또는 本家入納)’이라고 써서 보냈다. 그러나 부모님이 객지에 계실 때 ‘김철수 본제입납’이라고 쓰면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

독자 의견란

이름		나이		성별	
주소				전화 번호	
출생지			최종 학력		

쪽 수	표준안	개선안	개선해야 할 이유

쪽 수	표준안	개선안	개선해야 할 이유

* 종이가 모자라는 분은 다른 종이에 쓰셔도 됩니다.

독자 의견란 보내실 곳 :

110-0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문화부 어문출판국 어문과

110-3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운니동 124-7
국립국어연구원 연구2부

담당 연구원 : 김세중, 김연순, 이근용

국어의 표준 화법 (시안)

1991년 12월 20일 인쇄
1991년 12월 30일 발행
편집 국립국어연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운니동 124-7
전화 번호 764-9387~9
발행 문화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 번호 736-7946~9
인쇄 정문시문화(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3
전화 번호 734-2236

(비매품)